

정서법 지도 서설

위 호 정 (서울대 박사과정)

I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라는 견해가 그 첫번째 견해이다. 두번째 견해는 국어교육의 목표는 어떤 정의적인 가치를 신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두번째 유형은 바람직한 정의적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는 이도 있고,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어교육이 지향할 바라 하는 이도 있으며, 사회를 바르게 보는 눈을 길러 주어서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것이 국어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세번째 견해는 국어교육은 궁극적으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어라는 ‘言語의 使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어’라는 교과에서 언어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언어 사용의 양상 자체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사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며, 언어에서 미적인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하고, 이미 표현된 언어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 사용을 위해 선택하는 단위들과 그 단위들의 결합은 관습적

인 것이다. 어떤 개념을 반드시 어떠한 음성 형식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필연적인 법칙은 없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에, 관습적인 언어 단위를 사용하지 않거나, 언어 기호들을 이해와 표현에 사용할 때 관습적인 언어의 용법에 맞추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관습적인 언어의 단위와 그 용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국어 교육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正書法’ 지도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 서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실체화될 때의 매체에 따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뉜다. 한 언어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어적 관습도 있지만, 각기 독특한 관습을 지니기도 한다. 음성 언어에서와는 문자 언어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습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어를 문자화할 때에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필요에 의해 한자를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철자상의 관습이 있다. 이밖에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 또한 문자 언어의 관습이며, 내용의 강조를 위해 밑줄을 긋거나, 글자의 위나 아래에 점을 찍는 것도 문자 언어의 관습에 속한다. 어떠한 글이 이러한 여러 유형의 관습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적잖은 장애를 받게 되며,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문식성(literacy)의 획득이란 바로 이러한 문자언어의 여러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맞춤법은 언어 공동체의 암묵적인 약속으로서의 ‘관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고시한 일종의 ‘규범’의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게 표기(spelling)하는 것은 문자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다.

정서법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곧 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서법의 지도는 중요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많은 문제들을 거의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도로 복잡한 작업이다. 즉 글을 쓰는 이는 글씨, 맞

습법, 문장부호, 단어의 선택, 통사 구조, 문장의 연결 관계,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조직, 글의 명료성, 문체, 예상되는 읽는이의 반응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의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글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이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심하게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작문의 하위 과정들을, 예컨대, 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고, 문장 부호를 원활히 활용하는 등의 기초기능의 수행을 대단히 숙련된 솜씨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작문 능력의 발달 단계의 초기에는 맞춤법, 문장 부호, 형태 및 어휘 등이 작문의 과정에 심한 제약을 가하는 반면, 후기 단계에서는 문어적 담화가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Shuy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

또한 정서법에 맞게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도 학생들이 문자 언어의 관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II

지금까지 정서법 지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두 가지 측면은 연구의 명칭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데, '문자 지도'와 '정서법 지도'가 바로 그것이다.²⁾

문자 지도는 주로 문자 언어의 규범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것이 아동들의 解號(decding)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문자 언어의 표현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행해졌다. 입문기의 한글 지도 방법은 크게 보아 두

1) 盧命完 외(1988), pp.282-307, pp.352-359.

2) 엄밀히 말하면 정서법 지도와 문자 지도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법 지도는 의미를 문자화하는 것과 관련되며, 문자 지도는 반대로 문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생각이나 느낌을 글자로 옮기는 것은 쓰여진 글자에서 의미를 파악해 내는 활동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문자의 解號(decoding) 전략은 표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이 그것이다. 상향식 방법은 단어의 발음과 철자에 강조를 두어 字素나 음절의 소리값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리값에 익숙하게 한 연후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으로, 흔히 자모식, 음절식³⁾이라 불리던 발음을 중요시 하는 문자 지도 방법이다. 반면 하향식 방법은 먼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단어의 형태를 익히게 하는 지도 방법이다. 흔히 단어식과 문장식으로 불리던 의미 중심의 문자 지도 방법이 이에 속한다.

각각의 문자 지도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이론적 배경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몇몇 실험 연구⁴⁾에 의하면, 국어의 경우 기본 음절표를 사용한 상향식 지도 방법이 단어·문장식의 하향식 지도 방법보다 학생들의 解號 능력 신장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문자 지도 방법은 학생들의 해호 전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⁵⁾

그러나 입문기의 문자 지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의 解號 능력의 신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해호 능력의 신장이 정서법 능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의 음성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해의 측면보다는 표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또한 국민학교에서는 ‘받아쓰기’라는 형태의 정서법 능력 평가가 저학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문자 언어 입문기의 정서법 능력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서법 지도 혹은 맞춤법 지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어느 정도 해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로 학생들이 정서

3) 음절식 방법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음절을 최소한의 단위로 잡아 교수하는 방법과 기본음절표를 이용하여 음소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盧命完(1975)의 지적대로 ‘체계적 자모중심 교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될 것이다.

4) 盧命完(1975), 李應百·崔賢燮·尹希苑(1992).

5) 盧命完(1975), pp.46 - 50. 盧命完(1975)에서는 ‘독서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해호 전략’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법 규범에 맞게 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정서법 능력을 길러 주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서법 오류 실태를 조사하거나, 오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주로 학생들에게 정서법 능력을 길러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류였다. 입문기 문자 지도가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아동들의 표현보다는 이해의 측면에,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호 능력의 신장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정서법 지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해보다는 표현의 측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서법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오류의 분류 대상을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보다는 결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류 교정 지도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魏好廷(1990)은 오류의 분석 기준을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둬으로써 오류 교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진일보했다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포괄적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학생들이 정서법의 오류를 보이는 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정서법 오류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표준 발음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 오류(음운론적 오류),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는 있으나 단어의 기저형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형태음운론적 오류), 단어의 통사적 기능의 혼동에서 생겨난 오류(통사론적 오류), 정서법 규정이 너무 어렵거나 변동된 규정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규정적 오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의 문제점으로는 오류의 분석이 지나치게 언어학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서법 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정서법 오류를 언어학적으로만 분석한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사론적 오류라고 명명된 오류가 그 한 예이다. '안'과 '않-'을 구분하여 적지 못하는 것은, 그 두 단어의 통사적 기능을

-
- 6)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으로 문제성 있는 항목만을 선정하여 그 항목에 해당하는 표기에서 정서법의 오류를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하게 오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혼동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통사론적 오류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단어의 기저형을 안다면 발생하지 않는 오류로, 다시 말하면 형태음운론적 오류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자기 일에만 쪽기어’의 ‘쪽기어’도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쪽기어’를 음운론적 오류로 보아야 할지, 형태음운론적 오류로 보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국어 정서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준어를 알고, 모든 단어의 기저형을 안다면 정서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서법에 맞게 표기한다고 해서 그 단어의 표준 발음을 알고 있고, 그 기저형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 발음을 모르면서도, 그리고 기저형을 모르면서도 정서법에 맞게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ㅈ’와 ‘ㅊ’를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면서도 표기를 할 때에는 구분을 하여 표기한다. 또한 “싸게 팝니다”라고 쓰는 사람이 반드시 ‘-ㅂ니다’라는 단어의 기저형을 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팝니다]라고 발음하면서도, 그리고 첫 음절의 받침을 ‘ㅁ’이 아니라 ‘ㅂ’을 사용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다시 말하면 그 기저형을 알지 못하면서도 “팝니다”라고 쓰는 것은 그 형태가 눈에 익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 역시 비슷한 예이다.

‘나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다 읽지는 못했다.’

‘읽다’를 ‘읽다’로 표기한 경우이다. 물론 이 학생은 ‘읽다’라는 기저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생은 접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이 학생은 여러 글들을 접하고서 ‘읽다’라는 단어가 접받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표기에 접받침을, 비록 정서법에는 어긋났지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이 학생이 표기를 위해 사용한 전략은 언어학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서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표기 전략이 반드시 언어학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서법 오류를 언어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분류하는 것은 정서법 지도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언어’ 자체가 아니라 ‘言語의 使用’

이라면, 정서법 지도와 관련된 연구 또한 정서법 체계나 언어학적 지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어의 사용'이라는 개념 안에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략',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인지 능력⁷⁾이나 신체적인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서법 지도에 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오류를 다룰 때에는 그것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 오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표기 능력(spelling ability)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표기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서법 지도 원리와 방법을 밝혀 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서법 지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혀내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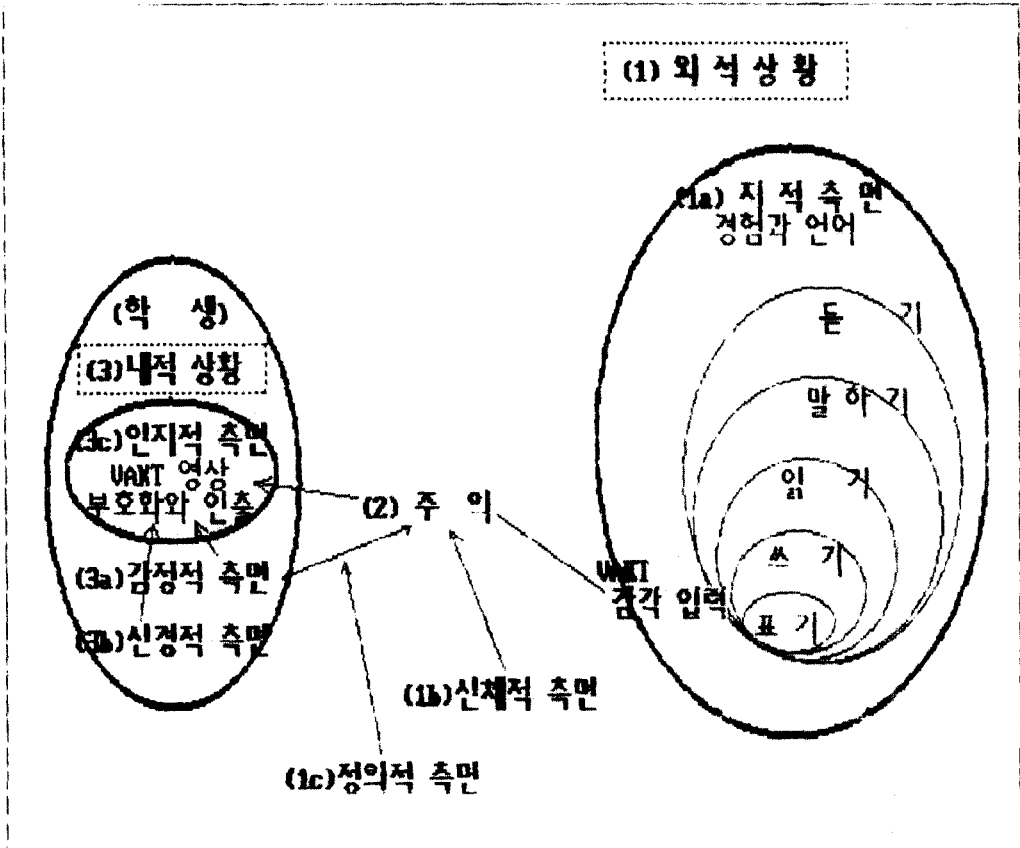
- (1) 국어 정서법의 원리는 무엇인가?
- (2) 학생들은 표기 능력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 (3) 학생들이 표기할 때에 사용하는 전략을 무엇인가?⁸⁾
- (4) 학생들의 정서법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데에 효과적인 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

학생들이 표기 능력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정서법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표기 학습은 신경적, 감정적, 인지적 측면이 포함된 학습자의 내적 상황과, 신체적, 정의적, 지적 측면이 포함된 외적 상황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면에 보이는 모형⁹⁾은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요인들과 표기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
- 7) 표기 능력과 관련지어서 말하자면, 문자의 형태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속할 것이다.
 - 8) 학생들이 표기에 사용하는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쓴 글에서 오류를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쓰는 동안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9) Tarasoff(1990), p.16.

< 그림 1 : 표기의 학습 과정 모형 >



* VAKT 감각 - 시각적, 청각적, 운동신경적, 촉각적 감각
(Visual, Auditory, Kinesthetic, Tactile sensory)

1. 學習의 外的 狀況

학습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학습자의 지적, 신체적, 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 환경들을 효과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표기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기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a. 知的 側面

표기는 언어의 여러 양상 중의 하나이다. 또한 표기는 언어 발달의 모든 측면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말을 하고 들으면서 어휘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달한 어휘 능력은 단어를 표기하거나 읽을 때에 필요한 단어의 소리의 인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게 되면 단어의 의미와 표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글을 읽을 때 표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읽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기 능력의 발달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언어 활동의 영역을 쓰기이다.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실제로 언어를 표기해 봄으로써 그들의 표기 능력을 더욱 계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어 교육의 모든 영역이 표기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사실 대부분의 표기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활동을 통해 얻는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의 모든 영역을 지도할 때에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표기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다면 표기 지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b. 身體的 側面

인간의 모든 학습은 신체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언어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신체적인 요소들을 감소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보고 듣고 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조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학습의 신체적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1c. 情意的 側面

긍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자세를 형성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학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기를 지도할 때에도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서법 능력을 신장

시키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자극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스스로를 표기를 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는 성공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표기 지도의 내용을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들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注意(attention)

두뇌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기억 체계 안에서 인지적 과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긴 감각적 입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어떤 학습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의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주의이다. 주의를 제시되는 자극이 의미 있고, 변화가 있으며 새로울 때에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기 지도 교재의 구성은 의의 있고, 지루하지 않으며, 변화감과 새로움을 추구하여 이루어져야 소기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學習의 內的 狀況

이상에서 학습의 외적 상황과 학습자의 외적 자극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지만,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은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존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감정적 측면, 신경적 측면,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a. 감정적 측면

학습자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달라진다. 또한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는 인지적 과정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취감이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자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표기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학습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대한

갈망을 없앨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표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3b. 생리적 측면

생리적 능력과 상태 또한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청각에 이상이 있거나, 시각 혹은 운동 신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혹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에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 학습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교수의 방법이나 시간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3c. 인지적 측면

인지적 과정이란 두뇌의 신경 체계에 감각 입력이 표상되는 과정을 말한다. 학습이 일어나려면 우선 학습자의 시각적, 청각적, 혹은 운동신경적/촉각적 감각이 문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만 문자의 시각적, 청각적, 운동신경적/촉각적 영상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이러한 감각적 영상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경 표상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즉 감각적 영상들이 어떻게 기억에 저장되고, 후에 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표기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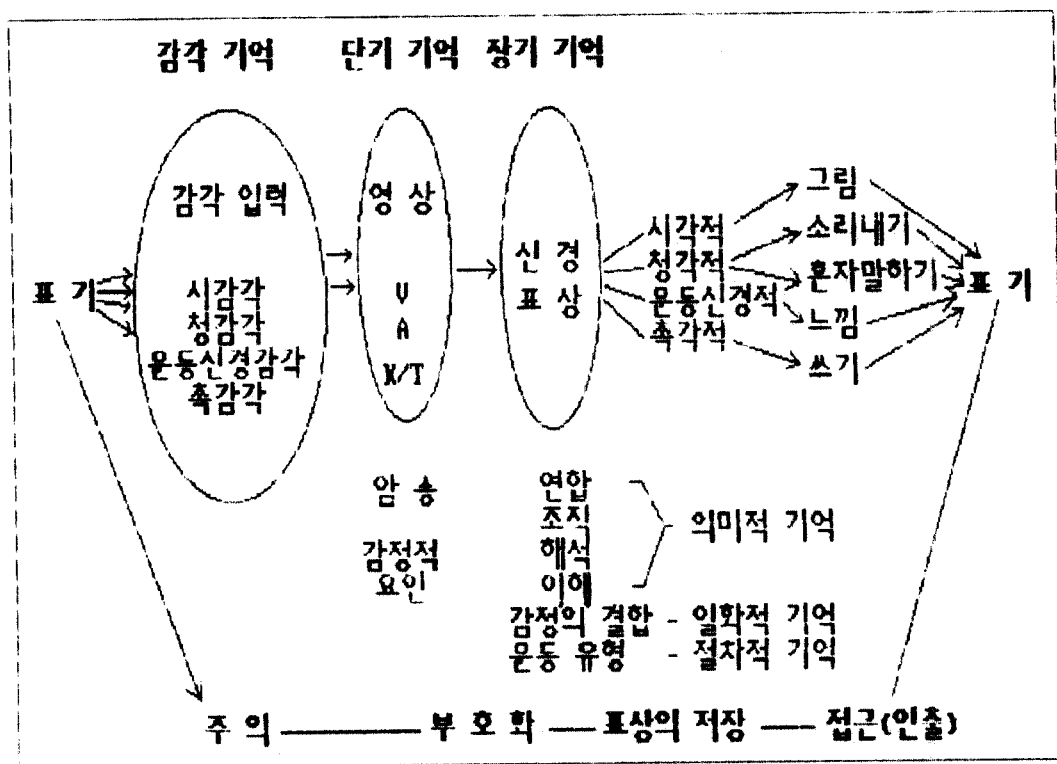
기억 속에서 표기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은 다음 편의 <그림 2>와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모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표기 처리의 첫번째 과정은 감각 입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즉 제시되는 문자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표기 처리의 첫번째 과정이다. 외부의 제반 환경에 대한 정보는 시각 감각(V), 청각 감각(A), 운동신경 감각(K), 촉각적 감각(T)이라는 신경 체계로 표상된다. 이런 감각들은 감각 기억 속에 아주 잠시 머무르다가 시각, 청각, 운동/촉각 표상의 형태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선택된 입력 정보는 단기 기억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부호화된다. 이

단계에서 암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력 정보를 부호화(encoding)하지 못하면 입력 정보는 사라져서 없어지고 만다. 이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초인지적 과정이며, 이것이 무의식적인 학습과 보다

〈그림 2 - 기억에서의 표기 처리〉



의식적인 학습을 구분짓는다.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부호화된 정보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가 결함, 조직, 해석, 이해 등을 통해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정보들과 관련을 맺을 때에 학습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기억에는 의미적 기억(semantic memory), 일화적(episodic) 기억, 절차적(procedural) 기억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의미적 기억은, 지적(intellectual)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학습의 원래 상황 등이 제거된 정보만이 저장된다. 문맥과는 고립되어 단어의 표기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반면 일화적 기억은 정서적(emotional)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상황

과 정서와 연합되어 기억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단어의 표기를 기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절차적 기억은 운동적(motor)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떠한 운동 패턴을 학습자가 형성할 수 있게 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표기 능력의 신장을 신장시키려면 학생들에게 표기를 많이 해 볼 수 있도록, 쓰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단 한번 부호화된 정보는 장기 기억에서 인출될 수 있다. 정보의 인출은 단어 표기를 부호화할 때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표상 체계로 인출을 할 때에 더욱 효과적이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단어 표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시각적으로 표상화했다면 회상할 때에도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보다 쉽게 회상된다. 만약 청각-시각 표상 과정이 사용되었다면, 낱자를 듣고 볼 때(hearing and seeing) 표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회상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상 체계 중에서 어떠한 한 체계를 다른 것보다 선호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표상 체계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학습은 청각적 표상과 음성적 표상 혹은 운동신경/촉각적 표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즉 표기를 시각적, 음성적, 운동신경/촉각적 영상으로 표상하거나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신경적 피드백 반응과 결합된 시각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표기하려 할 때에는 음성적 전략 등 다른 전략들을 사용한다. 반면 표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각적 전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효과적인 다른 전략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략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시각적 전략이란 시각적으로 표상을 기억해 냄으로써 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들이 표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 학생은 시각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표기를 기억하려 할 때에 눈에 초점이 없이 없이 위를 주시한다.

- ‘맞는 것 같아 보여.’, ‘잘 그랬네.’ 등의 말을 한다.
- 여러 다른 표기들을 써 보고는 바른 것을 하나 고른다.
- 비음운적인 표기를 쓴다.
- 단어들을 빨리 쓴다.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학생은 청각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청각적 전략이란 청각적으로 표상을 기억해 내어 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표기를 기억하려고 할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본다.
- ‘맞는 것 같이 들려.’, ‘어디 읽어 보자’ 등의 말을 한다.
- 단어를 쓸 때 한 번에 몇 개의 낱자들을 소리내면서 천천히 쓴다.
- 비음운적인 단어를 음운적으로 표기해 본다.

표기를 잘 하는 사람은 이런 청각적 전략들을 초기 단계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점차 표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다른 전략들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표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청각적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운동신경적/촉각적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

- 표기하려고 할 때에 아래를 내려다 본다.
- 음운적 혹은 시각적 패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오류를 범한다.

이 전략은 대부분 표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표기 자세를 관찰하면 그 학생이 어떠한 표기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기 전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사는 교수 활동을 통해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 활동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관찰한 후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암시를 주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네가

쓴 것은 어떻게 읽니?', '네가 쓴 단어를 읽어보련?' 등의 말을 해 주어 음성적 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 반면 음성적 전략만을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날자를 보렴.', '마음 속에다 표기의 그림을 그려보렴.', '빨리 쓰렴.' 등의 암시를 주어 시각적 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요약컨대 교수 전략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기 전략과 관련을 맺을 때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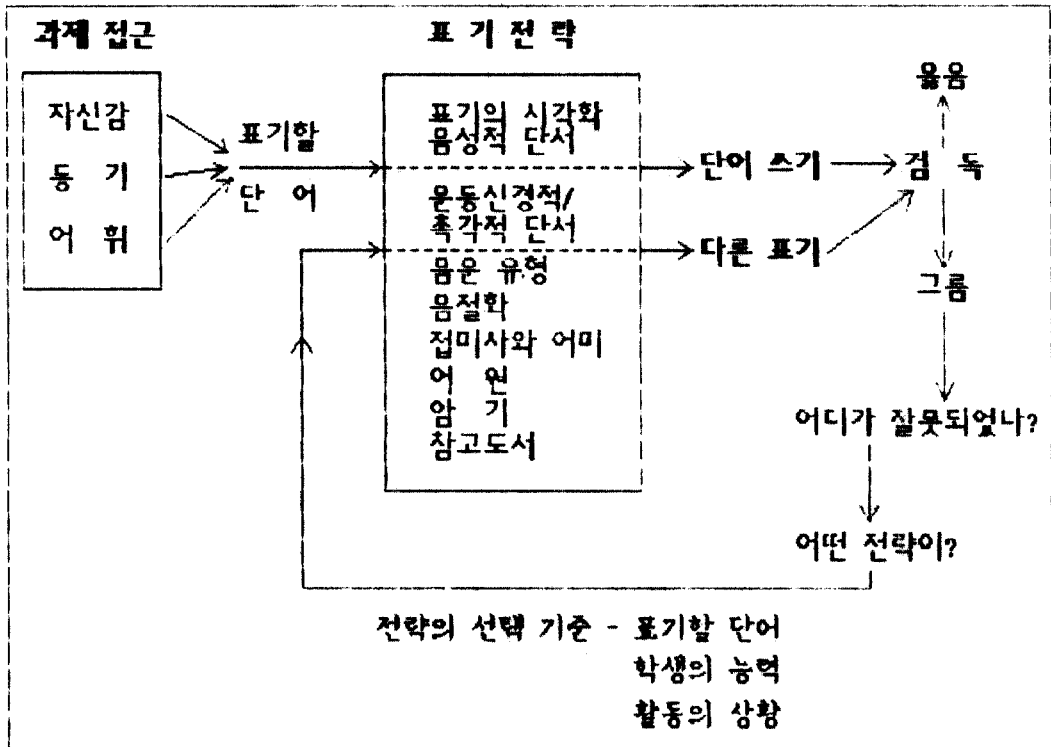
또한 표기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교수 전략은 학생의 표기 능력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한다.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효과적으로 표기를 하는 사람은 초기에는 음운론적 전략을 사용하지만, 점차 시각-정서법적 전략이나 형태론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국어의 경우 영어와 표기 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기에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략 역시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발달 단계별로 사용하는 표기 전략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표기 전략의 발달 단계를 우선 연구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교수 전략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IV

이번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기 과제에 접할 때에는 자신의 표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동기, 그리고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표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단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여러 표기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표기 전략에는 표기를 시각화하기, 청각적 단서를 사용하기, 운동신경적/촉각적 단서 사용하기, 음운적 패턴을 사용하기, 음절화하여 표기하기, 접미사나 어미를 사용하기, 어원을 고려하기, 암기법을 사용하기, 참고서적을 이용하기 등이 있다. 표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한 단어에는 어느 한 가지 전략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단어를 표기하고 난 다음엔 檢讀(proofread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검독을 통하여 그 표기가 옳다고 느끼면 괜찮지만, 만일 표기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여 다른 표기 전략을 사용하여 다시 표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를 모형화한 것이 다음 편의 <그림

-3>이다. ■

< 그림-3 : 표기 처리 모형 >



그러나 국어의 경우, 영어와는 언어 자체가 다르고, 정서법 체계 또한 같지 않기 때문에 국어의 위에서 언급한 표기 전략이 국어의 경우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면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표기 전략이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국어의 경우 단어의 기저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다.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교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정서법 전략들을 밝혀내는 일이 필요하겠다. 또한 표기 전략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언어 능력, 표

기 능력의 발달 단계별로 그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처음 문자를 학습할 때에서부터 제법 정서법 규정에 맞게 표기를 할 수 있는 시기의 교정 교육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표기 능력의 발달은, 음성 언어 발달에서의 ‘웅알이’에 해당하는, ‘긁적이기(scribbling)’의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서 대체로 아이들은 몇몇 개의 글자와 음성과의 관계를 익히기 시작하면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차로 철자와 의미를 관련지어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참고로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의 표기 전략의 발달¹²⁾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 영어 사용자의 표기 발달 단계>

Gentry(1987) Parry & Hornsby(1985)	Cochrane et al. (1984)	Henderson & Templeton (1986)
전의사소통 단계 낱자를 규칙없이 사용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음	전음성적 단계 단어의 길이를 결정하는 대상의 특징 등과 같은 자신의 규칙 결정	단계 1 이야기에 대해, 쓰기가 무엇인지, 낱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 문자언어의 기능과 형태의 개념 반영
반음성적 단계 몇몇 음성/기호 관계 낱자 이름 조음적 단서 한두개 낱자로된 단어	음성적 단계 조음적 단서 낱자-이름 전략 소리 생산	단계 2 알파벳식으로 표기 소리와 문자의 대응 낱자-이름 전략

12) 위의 책, p.36.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성적 단계 소리에 기초한 낱자, 그러나 틀린 낱자연쇄 모음-가끔 정확 비음앞 자음 탈락 단어 분절	문자-음성적 단계 소리/상징 대응	
과도기 대부분 음절에 모음을 낱자/이름 전략 소멸 시각적/정서법 전략 정확한 표기를 알고 있는 단어의 증가	문자-음성 단계 낱자 연쇄, 패턴, 분포	단계 3 소리와 패턴에 주의 단어의 낱자-패턴
표준적 단계 필요한 대부분의 단어 를 표기할 수 있음 자동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 많아짐 표기 오류 인식하고 고치려 함 구조적 단위에 대한 지식 이용	의미/통사적 단계 형태론적 단서 파생 굴절 합성	단계 4 다음절 단어 구조적 단위
		단계 5 파생 관계 의미/표기 결합의 확대

Henderson 과 Templeton이 말하는 단계 1은 대체로 국민학교 취학 전에 나타난다. 국민학생들은 단계 3과 4 정도의 발달 정도를 보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단계 4에 도달한 후, 약간의 오류를 보이기는 하지만 단계 5에

이르러서는 능숙한 표기자가 된다.

5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표기와 관련된 교수 내용은 국민학교 1,2 학년과 고등학교 과정에 국한되어 있을 뿐, 국민학교 중,고학년이나 중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¹³⁾ 표기 능력의 발달 단계를 비추어 볼 때, 표기 지도는 국민학교 1,2학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학교 전 과정과 중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으로 교수-학습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어 사용자의 표기 능력의 발달과 국어 사용자의 표기 능력의 발달이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영어 사용권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우리의 교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일반적 인지 능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리고 표기 능력이 쓰기 능력의 하위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내용은 적어도 중학교에서 끝마칠 수 있어야 한다.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각 발달 단계에서 학생들은 쓰기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 또, 그 행동들을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표기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 방법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의 표기 발달 단계별로 그들의 쓰기에 나타나는 현상 혹은 행동과, 각 발달 단계별로 알고 있는 지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편의 <표-2>와 같다.¹⁴⁾

13) 이러한 사정은 이미 고시된 제 6 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4) 위의 책, p.75.

〈 표-2 : 표기 지식과 전략 〉

단 계	前 의사소통기	반음성기	음 성 기	과 도 기	표 준 기	지 속 발 전 기
쓰 기 에 나 타 나 는 현 상	그림 글자꼴 형 태의 날자 연쇄 방향성에 일관성 결여	어두 자음 어말 자음 어중 자음 모음표지 방향성고정 띄어쓰기 시각 언어	짧은 모음 필수 음운 표상 날자연쇄와 음운 대응 장모음유형 음운적으로 쉽게 읽는 단어보다 시각어 자동화된 단어몇개	모음 패턴 지식의 정교화 비음앞의 자음 이중모음 굴절 어미 비음성적 유형의 많은 단어 기억 r-지배 모음	다음절단어 접사와어근 -표기와 의미의 연결 다양한전략 의 사용 자동화된 단어의 증가	어휘의 확충
전 략	자신감 신념 언어발달 써보기	알파벳 소리내기 날자이름 조음 단서 소리/기호 의 1:1 대응	단어간의 시각화 날자연쇄와 소리 대응 검	패턴 시각- 음운전략 에서 다른 전략으로 아는 단어에 서 유추 의미/표기의 연결 독 음 절 화	정서법 초인지적 주 의	낮선 단어 를 접했을 때 다른 모든 전 략에 실 패하면 음운전략
지 식	글에는 의 미가 있다 쓰기는 줄 위에 에 기호로 이루어짐 날자 학습	날자의이름 날자 쓰기 음운/문자 관계 조음적 단서	음운/문자 턴 날자의연쇄 비음운적 단어	손으로 쓰기 음운/문자 패턴 굴절 어미 단어 간의 관계	접미사와 어근 접두사와 어근 표기와 의 미의 관련 관련	유사 접두사 형태의 결 합 접미사 결 합 때 음 운 변화

V

이상에서 표기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 표기의 과정, 표기 전략의 발달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비록 국어의 표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밝혀낸 모형들이 아니었지만, 영어의 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국어의 그것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닐 것이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정서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은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초 기능이 된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신장시켜 주어야 할 능력이다. 정서법 지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것으로써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정서법 지도는 쓰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것이므로, 정서법 지도는 정서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학생들의 쓰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정서법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쓰기에서는 정서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난 후에는 반드시 되고 과정에서 정서법을 검독¹⁵⁾을 통해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법 지도는 읽기 지도와도 관련을 맺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입문기에는 해호 능력 신장과 표기 능력 신장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 표기법 체계는 낱자/소리의 대응 관계가 영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낱자/소리 대응에 대한 지식이 정서법 능력 신장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저학년에서는 각 낱자의 정확한 음가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¹⁶⁾ 맞춤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소리나는 대로 써보게 하는 연습을 시킨다면 정확한 낱자의 소리값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 표기법 체계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

15) 쓰기 후의 ‘推敲’ 과정을 통해 검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6) 음절말의 [ㄷ] 소리는 어원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ㄷ’이 아니라 ‘ㅌ’으로 표기한다. 이럴 경우에도 정확한 음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 즉 형태소의 기저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다. 형태소의 기저형은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 음성 환경에 의해 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저형을 밝혀 표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魏好廷(1990)에서 소개되었던, 국어의 음운 규칙을 이용한 정서법 지도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언어학 연구의 주류는 문자 언어가 아닌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음성 언어의 문자 언어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시각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정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음성언어에서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음성언어의 비표준성에서 비롯된 정서법의 오류를 상당히 범한다.¹⁷⁾

그러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각기 독립적인 규범을 지닌 언어 체계이다.¹⁸⁾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에 영향을 미치듯이, 문자 언어 또한 음성 언어에 영향을 준다. 몇몇 연구들¹⁹⁾은 문자 언어의 습득이 음성 언어의 능력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준어와 방언의 발음이 다를 경우, 방언 화자들은 단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면서 표준 발음을 습득한다고 한다. 따라서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정서법 오류의 교정은 오히려 문자 언어를 이용한 교수를 통해서 교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자 언어를 통한 지도는 표준 음성 언어의 구사 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법 지도는 어휘 지도와 관련을 맺어야 할 것이다. 단어의 의미와 어원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들이 표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 류준형(1979)은 경남 지역 어린이들이 범하는 정서법 오류 중에서 상당수가 사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8) Vachek(1989), pp.103 - 115.

19) Ehri, L.A. (1985), Effects of printed language acquisition on speech, in Olson, et als. eds. (1985). 그리고 Barron, R.W. (1985), Interactions between spelling and sound in literacy, in Olson, et als. eds. (1985)

마지막으로 국어 사전이나, <한글 맞춤법> 등을 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법 규정에 사용된 용어와 그 개념들을 지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 参 考 文 献 >

- 盧命完(1975), 「初期讀書에서의 教授方法이 讀書戰略 形成에 미치는 效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盧命完·朴泳穆·權敬顔(1988), 國語科教育論, 甲乙出版社.
- 류준형(1979), “작문 분석을 통한 맞춤법 오용에 관한 고찰”, 『새국어교육』 29·30.
- 魏好廷(1990), 「중학생의 正書法 誤謬 分析 및 그 矯正을 위한 實驗的 研究 - 形態音韻論的 誤謬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應百·崔賢燮·尹希苑(1992), “국민학교 低學年 文字指導의 문제점 分析과 文字指導 자료의 實驗的 開發 研究”, 『蘭臺 李應百 博士 古稀紀念論文集』.
- Barron, R.W.(1985), “Interactions between spelling and sound in literacy”, in Olson, e., et als., eds.(1985).
- Ehri, L.C.(1985), “Effects of printed language acquisition on speech”, in Olson, D., et als., eds.(1985).
- Frith, U., ed.(1980), *Cognitive Processes in Spelling*, Academic Press.
- Olson, D., N. Torrance, A. Hildyard, eds.(1985),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rasoff, M.(1990), *Spelling - Strategies You can teach*, M.V. Egan Publishing.
- Vachek, J.(1989), *Written Language Reviseted*, John Benjamins Pulisheing Company.